

림드 메이크업의 기호해석 패러다임

김 현 미* · 장 애 란⁺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 겸임교수*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Paradigm for the Semiotical Interpretation of Rimmed Make-up

Hyun-Mi Kim* · Ae-Ran Jang⁺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Cheju Hall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 8. 9, 심사(수정)일: 2011. 10. 29, 게재확정일: 2011. 11. 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an importance of systemic analysis paradigm to interpret fashion make-up. This research employed 'paradigm for interpretation of fashion make-up signs' theory to analyze data. This theory consists of three step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work: (1) recognition of form, (2) analysis of connotation meanings, and (3) analysis of symbolic meanings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Jean Paul Gaultier's eye make-up uses a square pattern that mostly consists of the color black. He presents a Glam Rock image by using rimmed make-up that portrays an avant-garde and a nonmainstream culture. Jean Paul Gaultier's make-up was showing black color and square eye pattern and was presenting Glam Rock image and was a rimmed make-up meaning a nonmainstream culture and Avant-garde symbolically. Chanel's make-up emphasizes the eyehole with the rimmed technique by applying the make-up of Marchesa Casati and including non-popularity, Limited Marketing symbolically. Christian Dior's make-up applies the representative make-up of Joan of Arc and Siouxsie sioux and also uses rimmed make-up to portray the meaning of religion persecution, the dark-ages militarism and including Humanism symbolically.

Key words: meaning(의미), rimmed make-up(림드 메이크업), semiotical interpretation(기호해석), symbol(상징)

I. 서론

해석(解釋)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혹은 그 언어에 의한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표현방법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수학적 이론에서는 해석자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를 생성하므로 해석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표현방법이 문화적 현상인 경우에는 해석자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성되므로 상이한 해석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는 해석자 개인의 체험적 표현이 반영되거나 문화적 관점이 결여된 주관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문화해석학이나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도상해석학에서는 해석 도구나 해석의 수정 원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패션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트렌드(trend)를 반영하는 패션(fashion)의 개념이 접목된 것으로, 단순히 얼굴을 꾸미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과 기호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된 개념이다.¹⁾ 이와 같이 메이크업이 뷰티메이크업의 개념을 넘어서 예술성²⁾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면서³⁾,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또한 형태적 측면 보다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의미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패션메이크업은 실험적이고 아트적인 성향과 더불어 다양한 의미들이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디자이너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디자이너의 의도나 취향과는 다르게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해석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취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생활 속에서 획득한 후천적 성향으로, 사회적 존재조건과 취향사이의 관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들이 아비투스(habitus)⁴⁾를 우선적으로 포착해야한다⁵⁾고 지적한 것처럼 주관적 해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아비투스를 포착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내적·외

적 특성은 물론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해석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객관적인 메이크업 해석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⁶⁾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동일한 형태의 메이크업이 해석자에 따라서 상이한 해석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메이크업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이미 선행 연구된 메이크업 해석사례에서 동일한 패션메이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의해 해석의 상이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적으로는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지닌 립드 메이크업을 해석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지만 디자이너마다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가 될 수 있음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립드 메이크업은 다른 패션 메이크업 기법과 달리 단순한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적 요인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디자이너별 의미 비교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아방가르드와 클래식한 디자인이 공존하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그리고 클래식 디자인을 선호하는 샤넬(Chanel)을 선정하였다.

실증적 해석은 패션메이크업의 단계별 해석과정인 해석대상과 해석도구, 수정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을 차용하여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객관적 해석방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례별 패션메이크업 해석결과 분석

패션메이크업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동일한 패션메이크업을 해석한 사례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사례분석

을 위한 메이크업은 5개 이상의 연구에서 해석된 메이크업을 선정하여 비교해보기로 한다.

〈그림 1〉⁷⁾을 해석한 사례로 이귀영⁸⁾은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당시의 메이크업 특징들을 과장시켜 표현한 것으로 불러서도 디트리히의 불과 같이 야위어 보이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손향미⁹⁾와 오정희¹⁰⁾는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경은¹¹⁾은 1940년대 영화 속의 유희하는 여인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김현미¹²⁾는 조안 크로포드(Joan Crawford)에서 영감을 받고, 40년대 영화의 천연색 영화 촬영법인 테크니컬러(technicolor)기법에서 선명한 컬러를 재현하여 당시 메이크업의 특징적인 것들을 과장시키고, 이질적인 소재와 비비드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우스꽝스럽고 통속적인 메이크업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을 살펴본 바, 5명의 연구자 모두 영화배우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배우를 예로 들어 해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¹³⁾를 이귀영¹⁴⁾은 원색의 이질적인 소재를 붙인 콜라주 메이크업으로, 오정희¹⁵⁾는 아이브로우와 속눈썹 언더까지 혐오스러울 정도로 강조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장현숙¹⁶⁾은 고채도의 원색을 활용한 팝아트풍의 컬러 메이크업으로 화려하고 독특하다고 하였으며, 이경은¹⁷⁾은 형광색의 종이를 이용해 아르누보의 감성이 드러난 유기적인 형태를 붙임으로서 화려하고 글래머스한 메이크업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김현미와 장애란¹⁸⁾은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키치와 유머이미지가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고급예술의 세련미와 고상함에 대한 반격으로 문화예술에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을 살펴본 바, 5명의 연구자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나, 콜라주, 아방가르드, 팝아트, 키치와 같은 예술적인 이미지를 차용한 코드로 해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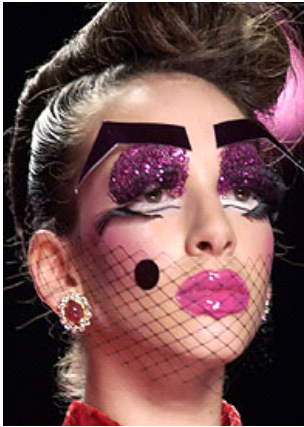
〈그림 3〉¹⁹⁾을 오정희²⁰⁾는 레이스를 이용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으로 해석하였으며, 이경은²¹⁾ 역시

레이스의 우아함을 아방가르드한 감성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귀영²²⁾은 파리 리도쇼의 화려한 무희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표현한 것으로 시트지와 비즈를 이용하여 인위적이며 과장되고 대담한 느낌으로 해석하였다. 장현숙²³⁾은 환타스틱한 메이크업으로 해석한 반면, 양진희²⁴⁾는 과장된 속눈썹과 레이스, 스팅글 등의 싸구려 소재를 사용하여 속물스럽고 유치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김현미와 장애란²⁵⁾은 파리 리도쇼의 무희이미지와 앳상블라주 기법 그리고 가부키식 메이크업을 혼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고상한 취미에 대한 부정 및 고급예술의 진지성과 엘리트적 특성에 대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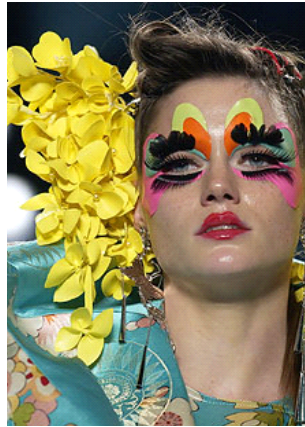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오정희와 이경은은 아방가르드한 메이크업이라는 동일한 해석을 하였으며, 이귀영과 김현미, 장애란은 파리 리도쇼의 무희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점은 유사하나 테크닉이나 표현기법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이미지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감정서술에도 해석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세 작품의 해석사례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별로 유사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유사한 해석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의 완벽한 전달이 이상(ideal)으로서 전제되는 일반적 커뮤니케이션 개념²⁶⁾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국 디자이너가 만든 의미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일반적 커뮤니케이션 개념 보다는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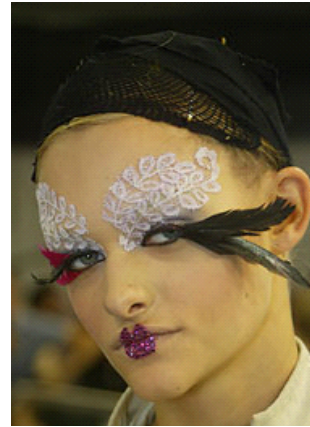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란 송신신호와 수신 신호 양자 사이에서 동일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암호화(encoding)와 해독화(decoding)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암호화와 해독화가 두 개의 다른 과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와 해독화가 동일할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암호화는 발신자에게서 유발되는 의미작용²⁷⁾이고, 해독



〈그림 1〉 John Galliano, Fall
2003 Ready-to-Wear
-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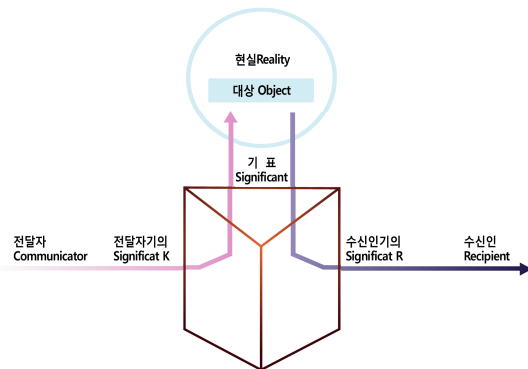
〈그림 2〉 Christian Dior, Fall
2003 Ready-to-Wear
- <http://www.style.com>



〈그림 3〉 Christian Dior, Spring
2003 Ready-to-Wear
- <http://www.style.com>

화는 수신자에게서 유발되는 의미작용이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해독한 의미는 발신자가 만들어낸 의미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수신자가 재생산해 낸 의미라고 할 수 있다.²⁸⁾

따라서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기호기능방식을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다음 〈그림 4〉²⁹⁾와 같다.



〈그림 4〉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기호 기능 방식
- 현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p. 22.

여기서 의미를 운반하는 기표³⁰⁾는 동일하지만, 전달자의 기의와 수신인의 기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주고받는 의미의 전

부를 메시지가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소들의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며 또 어디에 생기는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³¹⁾, 수신인의 교육 수준과 사회 풍토속의 사회적·개인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관습화된 규칙을 토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내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차이는 물론 오류를 피하고 디자이너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기 위한 메이크업 해석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2.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

메이크업은 예술적 의미가 내포된 미학기호로서, 메이크업을 해석하는 것은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의지 및 미적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문화를 읽어냄에 따라 그것을 향유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³²⁾이라 할 수 있다.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은 시각예술 작품에 대한 제반 여건과 작품과의 연관성 해석을 위

한 기틀을 제공하는 기호학 이론³³⁾을 바탕으로 문화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도상해석학³⁴⁾이론의 해석도구와 해석의 수정원리를 차용하여 해석방법을 보완하였다. 그래서 메이크업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와 디자이너 개인의 문화적 취향이나 특성, 시대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생성한 의미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은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 세 단계는 독립된 의미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과정으로 세 단계의 해석 단계를 거쳐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첫 번째 단계는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형태 분석 단계’로서 패션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단계이다. 즉,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형태, 색상, 소재, 질감 등의 조형요소 및 조형요소들을 구조화시키는 구성 원리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양식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관찰자의 감정입을 통한 패션 메이크업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술하는 것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유형에 따른 의미 분석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인식된 메이크업 기표에 해석자의 지식과 문헌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기의를 찾아내어 결합시키는 단계이다. 즉, 시대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배경분석을 통해 메이크업의 기호 유형의 발생 맥락을 분석하고 패션 메이크업 유형이 내포한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헌지식을 바탕으로 패션 메이크업 기호 형태가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단계로 유형사를 통해 해석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상징성 분석 및 의사소통단계’로서 패션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고, 패션 메이크업 작품 속에 내재된 미적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디자이너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즉, 패션 메이크업이 시대와 사상을 담아내는 현상학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분석하는 단계로 종합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징후나 일반적인 상징의 역사를 통해 해석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을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

I. 기호 형태분석 단계

- 메이크업 기표의 형태분석 단계
-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성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
- 메이크업의 조형특성 및 기법에서 감지되는 외시의 미를 주관적으로 서술
- 양식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해석 보완



II. 유형에 따른 의미분석 단계

- 메이크업 기표에 해석자의 지식을 동원해 적합한 기의를 해석해 내는 단계
- 시대적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 분석을 통한 메이크업 기호의 유형분석
- 문헌을 근거로 메이크업 유형의내포의미를 분석
- 유형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해석 보완



III. 상징분석 단계 및 의사소통 단계

- 메이크업 기호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
- 메이크업의 본질적인 미의식 분석
-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되는 문화적 징후 발견
- 메이크업 기호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이너와 동일한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단계
- 미적 향수를 통한 관찰자와 디자이너의 의사 소통 시도
- 종합직관에 의한 인문 역사학적 시각에 의한 해석 보완

<그림 5> 패션 메이크업 기호 해석 패러다임
- 포스트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 패션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p. 53.

Ⅲ. 림드 메이크업(Rimmed Makeup)의 기호해석 패러다임

림드 메이크업은 얼굴 중에서 눈이 포인트로, 집중적인 표현을 위해 아이 존을 둥글게 펴 바르는 기법을 사용한 패션 메이크업³⁶⁾으로,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고 블랙컬러나 다크 계열의 컬러가 주로 사용하며, 폐쇄적인, 닫힌, 몽환적인, 어두운, 차가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더불어 메이크업의 형식을 탈피한 일종의 아방가르드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림드 메이크업은 다른 패션 메이크업 기법과 달리 단순한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디자이너마다 유사한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별 의미 비교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실증적인 기호해석 도구로 림드 메이크업을 선택하였다.

특히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아방가르드와 클래식한 디자인이 공존하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그리고 클래식 디자인의 샤넬(Chanel) 컬렉션에서 메이크업 전문가 5인이 림드 메이크업이라고 판단한 세 개의 메이크업을 선별하여 패션메이크업 기호해석 패러다임의 3단계 측면에서 해석하기로 한다.

1.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림드 메이크업

1)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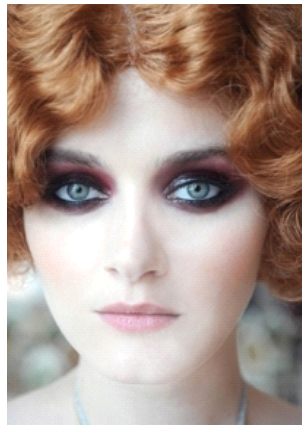
〈그림 6〉³⁷⁾은 크림 질감의 블랙컬러를 사용하여 관자부분까지 확장한 장방형의 형태로서 다크 그레이 컬러로 번지듯이 표현한 림드메이크업이다. 여기에서 1970년대 유행하였던 글램 락(Glam Rock)과 하드코어 뮤지션의 강렬한 메이크업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2단계

장 폴 고티에의 2011년 Spring Ready-to-Wear Collection에서는 뚱뚱한 모델인 크리스탈 렌(Crystal Renn)과 록큰롤 그룹인 가십(Gossip)의 베스 디토(Beth Ditto)를 모델로 발탁하고 3D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볼 수 있는 입체적 문양을 선보였다. 또한 바이크 재킷과 90도로 각이 진 스캐어드-오프 솔더 재킷, 쇼걸의 란제리룩에 못같이 뾰족한 스파이키 헤어와 닥터 마틴(D. Martens) 부츠를 함께 스타일링하였다. 이에 〈그림 6〉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 스킨헤드족과 1970년대 영국 펑크록 그룹과 뉴웨이브 뮤지션에게 인기를 얻었던 부츠 브랜드인



〈그림 6〉 Jean Paul Gaultier,
Spring 2011
Ready-to-Wear Collection
- <http://www.style.com>



〈그림 7〉 Chanel,
2010 Resort Collection
- <http://www.elle.co.kr>



〈그림 8〉 Christian Dior,
Fall 2006 couture Collection
- <http://www.style.com>

닥터 마틴 이미지, 베스 디토의 록큰롤 이미지, 그리고 스파이키 헤어의 이미지에는 서브 컬처, 즉, 젊은이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메이크업으로, 반항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 3단계

장 폴 고티에는 스커트를 입고 다니기를 즐기고, 평소 남성들도 사무실에서 스커트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적 성향의 디자이너이다. 또한 자신은 프랑스적이기 보다는 영국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국의 스트리트문화가 반영된 디자인이나 속옷의 겉옷화로 인한 의외성으로부터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로부터 헤어드레싱과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여성 화장품과 의상 연출에 의한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그림 6>의 메이크업은 아방가르드의 탈중심성을 상징하는 메이크업으로, 장 폴 고티에가 스트리트 문화인 록(Rock) 패션의 스타일링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한층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샤넬(Chanel)의 림드 메이크업

1) 1단계

<그림 7>³⁸⁾은 글로시한 질감의 블랙컬러로 아이홀 라인에 둥글게 바르고, 와인빛 레드컬러로 블랙컬러를 그라데이션하면서 눈두덩까지 바르고 눈썹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 둠으로써 깔끔한 라인이 돋보이는 림드메이크업이다. 여기에서 관능적이면서 고풍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2단계

샤넬의 2010년 Resort Collection은 영화<베니스에서의 죽음(Death in Venice)>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이 컬렉션을 '리도섬에서의 코코(Coco on the Lido)'라고 하여 코코 샤넬(Coco Chanel)의 일대기와 베니스를 표현하였다. 카니발에서 변장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탕토(Tabarro),

삼각형의 검은 모자로 구성된 바우타(La Bauta) 복장³⁹⁾,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타지오(Tadzio)가 입었던 세일러 칼라를 응용한 패션과 더불어 짧은 블론즈 컬러의 헤어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또한 샤넬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만 레이(Man Ray)가 찍은 마르케사 카사티(Marchera Casati)의 사진 중 카메라에 흔들린 눈매를 표현하고자 했다.⁴⁰⁾ 카사티는 브릴리언트 오렌지컬러로 염색한 헤어와 초크 화이트(chalk White)의 얼굴에 블랙 코올로 눈 주위를 둥글게 바르고, 가끔 블랙 테이프를 아웃라인을 강조한 독특한 취향의 메이크업을 하였다.⁴¹⁾ 이에 <그림 7>은 이탈리아 귀족이자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로 유명했던 카사티의 스타일을 차용하여 부르주아적 감성에 의한 난해하고 비대중적인 요소의 도입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 3단계

귀족적인 패션은 상류계층의 소수 특정인을 위한 특별하고 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명품 브랜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급 하우스들간에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특이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리미티드 마케팅(limited marketing)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그림 7>은 샤넬의 고전적 분위기인 클래식한 요소가 아닌 의도적이고 난해하며 비대중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아방가르드의 전위적 특성과 리미티드 마케팅을 추구한 차별화 전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샤넬이 추구하는 귀족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3.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림드 메이크업

1) 1단계

<그림 8>⁴²⁾은 매트한 질감의 블랙컬러를 사용하여 눈꼬리를 상승형으로 표현하였으며 화이트컬러로 언더라인과 아웃라인을 강조하였다. 눈썹과 입술 역시 블랙컬러로 직선적인 선을 표현한 림드메이크업이다.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2단계

크리스찬 디올의 2006년 Fall couture Collection은 잔 다르크(Joan of Arc), 여성 록커 수지 수(Siouxie Sioux)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하였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여전사처럼 갑옷 소매나, 구리로 만든 의상, 중세시대의 더블릿(doublet)과 호스(hose), 블랙과 레드컬러의 그라피티 드레스와 박쥐 헤드드레스, 그리고 고스감성의 핑크 룩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특히 서양에서 박쥐는 마녀나 악마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림 8>은 메이크업은 음울한 고딕적 핑크의 음약을 보여주는 수지 수의 메이크업 형태를 응용하면서 중세시대의 전쟁과 종교 박해의 희생양이었던 잔 다르크, 그리고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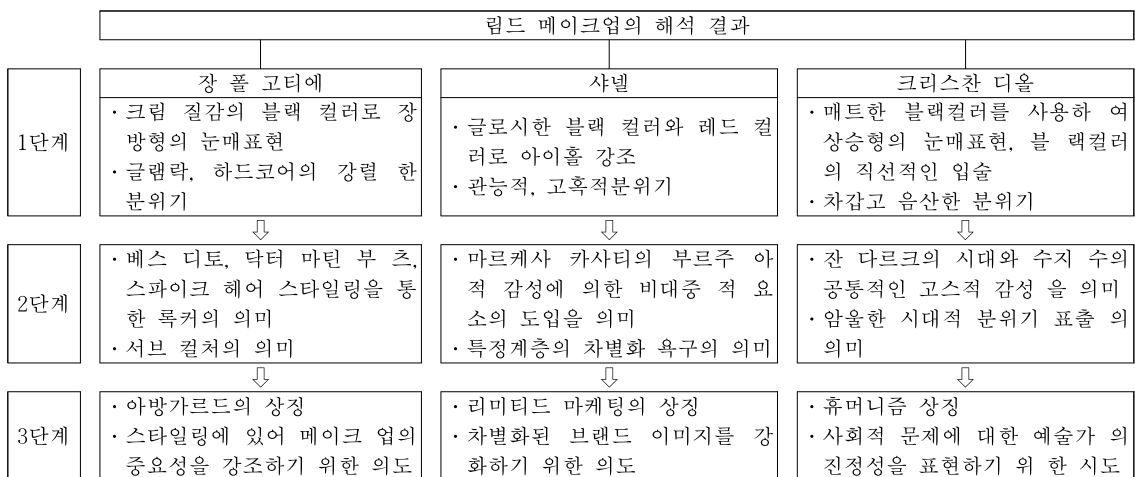
크리스찬 디올은 역사적으로 'Dior not war', 'Dior for peace'라는 문구를 티셔츠에 프린트함으로써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컬렉션을 진행해왔다. 그러므로 <그림 8>은 인간의 공허와 혼돈, 부정적인 현실을 고스의 감성으로 승화한 것으로 긍정적인 세계관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메이크업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크리스찬

디올이 패션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메이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립드 메이크업을 단계별로 해석한 결과, 립드 메이크업은 동일한 형태지만 서로 다른 의미 해석이 가능함을 도출하였다. 즉, 메이크업에 함축된 어둡고, 차가운, 폐쇄적인, 비주류적인, 몽환적인 의미는 물론 컬렉션의 테마 및 테마를 표현하려는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의 종합적인 관점과 의도에 따라 다른 의미들이 표현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9>와 같다.

IV. 결론

메이크업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성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타인이나 사회와 커뮤니케이션하게 된다. 즉, 기호로서 사회 현상 속에서 인지되는 메이크업은 마치 언어나 문자처럼 상호 의미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의 표현 분석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사상적 배경까지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그림 9> 립드 메이크업의 해석 단계별 결과

해석됨으로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해석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패션메이크업 기호 해석 패러다임'이야말로 메이크업의 해석대상과 해석도구, 그리고 해석의 수정 원리를 제시해줄 수 있으므로 기존의 해석과는 차별화된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메이크업 기호 해석 패러다임'의 3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형태 분석 단계'이며 패션 메이크업의 조형요소 및 조형요소들을 구조화시키는 구성 원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전해지는 분위기를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유형에 따른 의미 분석단계'로서, 시대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배경분석을 통해 메이크업의 기호 유형의 발생 맥락을 분석하고 패션 메이크업 유형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패션 메이크업 기호의 상징성 분석 및 의사소통단계'로서 패션 메이크업 기호를 통해 표현된 상징성을 분석하고, 패션 메이크업 작품 속에 내재된 미적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디자이너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를 토대로 장 폴 고티에,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을 중심으로 립드 메이크업을 해석한 결과, 장 폴 고티에는 서브컬처의 의미를 내포하여 아방가르드 예술 특성을 상징하고 있고, 샤넬은 귀족인 카사티의 의미를 내포하여 특이성을 추구하는 심리를 이용한 리미티드 마케팅 전략을 상징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디올은 고스적 감성의 뮤지션인 수지 수의 메이크업과 중세 시대의 종교 박해와 전쟁의 암울함을 내포하며 휴머니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형태와 감지되는 분위기는 유사하지만 내포된 의미에는 차이가 있음을 유추하였다. 또한 내포된 의미에 따라 메이크업의 상징성 또한 달라짐으로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메이크업일지라도 디자이너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메이크업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이크업 해석방법은 3단계가 유기적인 과정으로 연결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각 단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이를 보완한 해석방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최은지 (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 2) 장애란 (2007), John Galliano 컬렉션의 패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통속성, *복식*, 57(6), p. 75.
- 3) 이주현 (2003),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200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4) 아비투스(habitus)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획득되어진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한다.
- 5) 김영인 외 (2006),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파주: 교문사, p. 89.
- 6) 김현미, 장애란 (2009), Christian Dior 패션 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모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복식*, 59(3), pp. 14-26.
- 김현미 (2010), 포스트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 패션 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 김숙현, 장애란 (2010), Alexander McQueen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도상학적 해석, *복식*, 60(10), pp. 118-132.
- 7) John Galliano Fall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1, August 1, from <http://www.style.com>
- 8) 이귀영 (2008), 존 갈리아노의 패션 디자인연구 -의상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7.
- 9) 손향미 (2007), 현대의 뷰티 및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분석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복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3.
- 10) 오정희 (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90년대 이후 패션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
- 11) 이경은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2.
- 12) 김현미, *op. cit.*, pp. 60-61.
- 13) Christian Dior Fall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1, August 1, from <http://www.style.com>
- 14) 이귀영, *op. cit.*, p. 147.
- 15) 오정희, *op. cit.*, p. 34.
- 16) 장현숙 (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패션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 17) 이경은, *op. cit.*, pp. 151-152.

- 18) 김현미, 장애란, *op. cit.*, pp. 22-23.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1, August 1, from <http://www.style.com>
- 19) Christian Dior Spring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1, August 1, from <http://www.style.com>
- 20) 오정희, *op. cit.*, p. 51.
- 21) 이경은, *op. cit.*, p. 151.
- 22) 이귀영, *op. cit.*, pp. 146-147.
- 23) 장현숙, *op. cit.*, p. 24.
- 24) 양진희 (2006), 20세기 미술사조가 현대 메이크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2 (2), p. 70.
- 25) 김현미, 장애란, *op. cit.*, pp. 23-24.
- 26) 김병익 (1998), *기호와 해석*,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11-13.
- 27) 의미작용은 해석자에게 일으키는 인식효과(consnitive effect)로서, 해석자가해석자의 마음에 새로 창출된 어떤 것으로서 전달받은 기표(표현)에 해석자 마음속에서 적합한 기의(의미)를 찾아 결합시키는 행위로서, 해석자의 마음인 내부세계가 공급하는 기의가 없으면 의미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 28) Kroehl, H., *2,000 communication design*, 최길렬 역 (1993), *현대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국제, pp. 15-21.
- 29) *Ibid.*, p. 22.
- 30) 기호는 의미(기의)와 의미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체인 기표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표현형태가 기표가 된다.
- 31) Hawkes, T. (1977), *Structuralism and Semiotics*, 오원교 역 (1982), *구조주의와 기호학*, 서울: 신아사, pp. 114-115.
- 32) 김현미, *op. cit.*, pp. 2-3.
- 33) Chetham, M. A., Holly, M. A., Moxey, K. (2007), *(The)Subjects of Art History: History Objects in Contemporary Perspective*, 조선령 역 (2007),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p. 104.
- 34) Kaemmerling, E. (1973), *Ikonomographie und Ikonomie: Theorien Entwicklung*, 노성두 외 역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 p. 71.
- 35) 김현미, *op. cit.*, pp. 51-52.
- 36) *Ibid.*, p. 67.
- 37) Jean Paul Gaultier Spring 2011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1, August 1, from <http://www.style.com>
- 38) Chanel, 2010 Resort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1, August 1, from www.style.com
- 39) 이기철 (2006), 베네치아 역사와 카니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료검색일 2011. 8. 1, <http://k.daum.net/qa/file/view.html?qid=33HAz>
- 40) 엘르 편집부, Elle Korea Online, 자료검색일 2011. 8. 1, http://old.elle.co.kr/beauty/featureView.html?AI_INDEX=7459
- 41) McDowell, C. (1998), *Galliano*,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pp. 115-116.
- 42) Christian Dior, Fall 2006 couture Collection, Style